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EMORY OF THINGS

가제 : 그 날의 기억

저자 : Gae Polisner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6년 9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세상을 바꿔버린 9/11 사고 당일 처음 만난 두 사람, 망가진 도시와 기억 속에서 찾은 우정과 사랑

2001년 9월 11일 아침, 천둥이 치는 듯한 큰 폭발음과 함께 빌딩 하나가 폭삭 주저앉은 순간,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카일도 열린 학교 건물을 빠져 나와 맨해튼 빌딩숲 곳곳에서 튀어 나온 인파에 섞여 브루클린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리 쪽으로 접어들자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이 더욱 뻥뻥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의 우는 소리, 숨이 막혀 꺾꺾 대는 소리, 넋 나간 채 중얼거리는 소리가 카일의 주위를 둘러쌌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함께 빠져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가 서린 표정으로 한 방향을 향해 걸었고, 무리에 섞여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걸어가던 카일은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경찰인 카일의 아버지는 테러 기동대 소속이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급파될 것이 뻔했다. 카일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저 멀리 시커먼 연기가 마구 솟아 오르는 무너진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어서 가자며 멍청히 뒤돌아 서 있던 카일을 잡아끌었고, 카일도 겨우 진정한 뒤 일단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땅만 쳐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때, 태양이 내리쬐는 석조 바닥에 펼쳐진 거대한 날개 모양의 그림자가 카일의 시야에 들어왔다. 묘한 그림자를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카일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제정신이냐며, 왜 돌아가냐며 사람들이 너도나도 카일을 만류했지만, 카일은 모든 손길과 목소리를 뿌리치고, 기이한 이끌림을 따라서 날개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난간에서, 새라고 하기엔 너무나 크고 새하얀 날개를 마침내 발견한다.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뛰어 내리기라도 하려는 듯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그 이상한 형체는 새가 아닌 자그마한 소녀였다.

백지처럼 잃어버린 기억, 조금씩 싹트는 애뜻한 감정,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서로의 따뜻한 마음

카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처음 보는 소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그녀를 설득해서 일단 내려오게 만들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소녀를 자신을 따라 오라고 독촉하며 함께 다리를 건너고, 급기야 집까지 데려간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날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디로 흘러갈까? 왜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개를 단 채 새처럼 뛰어 내리려고 했을까? 안전한 집에 도착한 후, 카일은 소녀의 가족을 찾아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시선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소녀는, 가족이나 주소는커녕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일의 마음속에는 처음 결심과 달리 이 낯선 소녀를 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하기 시작한다.

세상을 바꾸어버린 비극적인 사고 이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기억을 안고 계속 살아야만 하는 두 사람의 우정과 첫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카일과 소녀의 시선으로 번갈아 가며 펼쳐진다.

<저자 소개>

가이 폴리스너(Gae Polisner)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이자 무역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틈 나는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 『The Summer of Letting Go』, 『The Pull of Gravity』 등을 발표하여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FREAKY & FEARLESS

가제 : 괴상한 이야기 vs. 용감무쌍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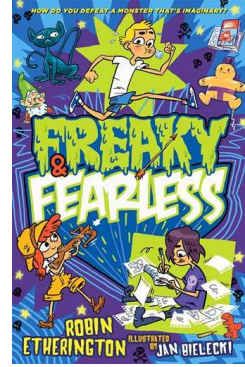
저자 : Robin Etherington

출판사: Piccadilly Press Ltd

발행일: 2016년 3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괴상망측한 이야기와 겁 없는 영웅들의 용감무쌍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진 기발한 상상 속 세계

흰한 대낮에도 커튼을 야무지게 치고 천장에 다닥다닥 붙인 형광 별을 감상할 줄 아는 사이먼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아직 열한 살 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지만, 사이먼은 아버지가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할 만큼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공책에 써 내려갔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가족들, 친구들, 누구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소재도 줄거리도 기발한 이야기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이먼에게 매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행사가 있다. 바로 <괴상한 이야기>와 <용감무쌍한 이야기> 최신호를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는 일이다. 즐거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아버지가 일 때문에 석 달 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당일도 사이먼의 머릿속엔 열른 책을 사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아버지의 배웅도 하는 둥 마는 둥, 엄마와 아직 갓난아기인 여동생 루비를 뒤로하고 사이먼은 쏜살같이 서점으로 달려갔다. 아뿔싸, 이미 서점 앞에는 그 두 가지 책을 사러 온 아이들로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이먼 또래의 아이들은 <괴상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쓰는 파와 사이먼처럼 <용감무쌍한 이야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파, 두 파벌로 극명히 나뉘었다. 둘 다 갖가지 이야기가 담긴 만화책이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책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사이먼의 입장에선 <용감무쌍한 이야기>가 세계에서 견줄 만한 만화책이 없을 만큼 최고라 생각하지만 <괴상한 이야기>의 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이먼이 보기엔 그 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섬뜩하고 기괴하고 쉴 새 없이 피가 철철 흐르는 무서울 뿐인데 말이다. 아버지를 배웅하느라 평소보다 긴 줄 맨 끝에 서게 된 사이먼은 슬슬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정신을 홀릴 만큼 멋들어진 이야기를 만들어서 일단 바로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경쟁자부터 처리한 다음, 한 명씩 이야기로 설득해서 줄 위치를 앞으로 옮기는 작전을 떠올린 것이다. 사이먼은 특유의 상상력을 힘껏 발휘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한다. 사이먼은 만화책 영웅들처럼 용감무쌍한 아이는 아닐지 몰라도, 사이먼의 이야기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도 매혹시키는 힘이 있었다.

괴물의 행방을 찾아 나선 타고난 이야기꾼, 재능 넘치는 만화가, 겁 없는 소녀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 실력 덕분에 무사히 만화책을 구한 그 날, 사이먼에게 중대한 임무가 맡겨졌다. 엄마를 대신해 꼬마 여동생 루비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사이먼과 제일 친한 친구인 위펫이 도와 주기로 한다. 위펫 역시 사이먼 못지 않게 상상력이 풍부한 만화 광이지만 두 사람의 전문 분야는 전혀 달랐다. 사이먼이 이야기 전문가라면 위펫은 그림의 대가였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만화를 그려대는 위펫도 사이먼처럼 실제 세상에서 모험을 즐기기도는 방안에 꼭 쳐 박혀서 상상 속 세상을 떠도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두 소심한 소년이 루비를 돌보던 중, 엄청난 사고가 터지고 만다. 만화 속에만 등장하던 미스터리한 괴물이 가상의 공간을 뚫고 두 사람이 있는 현실 세상으로 쳐들어오고 만 것이다! 게다가 이 괴물은 루비를 납치해서 어딘가로 데려가 버렸다! 이제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사이먼과 위펫, 두 소년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모험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괴물의 존재를 밝히고, 동생을 찾아낼 수 있다...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두 소년이 겨우겨우 짜낸 용기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용감무쌍한 낯선 소녀가 갑자기 등장한다. 자신을 루시 셔플보텀이라고 밝힌 소녀는 자그마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사이먼과 위펫이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화통하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겁이 없다! 이 요상한 소녀의 독촉에 주저하던 소년도 마침내 미스터리한 괴물을 찾아내기 위한 모험에 나선다. 세 사람은 괴물의 행방을 쫓아 너무 늦기 전에 루비를 구해낼 수 있을까? 형체도 숨겨진 능력도 드러나지 않은 이 괴물은 대체 무엇일까?

세 명의 괴짜 아이들이 펼치는 상상력 넘치는 모험은 3편의 시리즈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배꼽 잡는 상황과 마법 같은 사건들, 긴장감 넘치는 추격과 모험이 펼쳐진다. 간간히 등장하는 만화도 재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로빈 에더링턴(Robin Etherington)은 동생 로렌조 에더링턴과 함께 영국에서 '에더링턴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Malcolm Magic』, 『Monkey Nuts』, 『YORE』, 『Baggage』 등 만화 소설을 발표하고 수많은 상의 후보로 거론됐다. 두 사람은 '트랜스포머', '스타워즈', '월리스 앤 그로밋'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만화 작업에도 참여했다.